

조기 유학 붐의 선구자... 'AI 개발 주스'로 음료 혁신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은 원로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 씨와 노스웨스트 항공 승무원 출신의 양춘자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1985년 서울 강남구 구경중 3학년 때 미국 대통령이었다던 존 F. 케네디를 동경해 미국 유학을 떠났다.



케네디의 모교이자 사립고인 초우트 로즈마리 홀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학 전공 최우등으로 졸업해 주목 받았다. 하버드대 재학 시절 귀국해 서울 대 정치학과에 1년간 동아시아학 전공 교환학생으로 다니기도 했다.

법인 스캐든 뉴욕과 프레시필즈 홍콩에서 인턴을 거쳐 샌프란시스코 검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1993년 하버드대 졸업과 동시에 미국 유학 시절을 다룬 저서 '막 7장'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국내 조기유학 붐을 일으켰다. 이후 중국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지만 동창이 미국에서 좋은 경력을 쌓고 있다는 소식이 학업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떠났다.

1998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투자금융기업 리먼브러더스 뉴욕 본사의 인수합병(M&A) 그룹에서 전문 변호사로 일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벤처기업 스트릭시온을 창업했으나 사업 실패를 겪었다.

1995년 스탠퍼드대 로스쿨 합격 후 법무

2002년 50년간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중앙 언론사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을

인수해 대표이사 사장 겸 내외경제신문과 코리아헤럴드 발행인으로 취임해 언론인으로 변신했다. 헤럴드미디어로 변경한 뒤 내외경제신문을 헤럴드경제로 재창간하고 국내 언론사 최초로 인쇄 및 유통 인프라를 전면 외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시키는 놀라운 경영 능력으로 헤럴드에듀-헤럴드아카데미 디지털헤럴드 등 여러 계열사를 설립했으며 여성케이블채널 동아TV를 인수해 방송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08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계에 들어섰으나 현실 정치의 한계를 느껴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2012년 헤럴드미디어 사장으로 복귀해 연속 흑자를 달성한 뒤 2019년 회사를 매각했다.

2013년에는 친환경 혁신 푸드 기업 올가니카를 설립해 2015년부터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올가니카는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이 개발한 주스를 출시했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 연구원들이 주도한 AI 스타트업 스토캐스틱과 협업해 식품 개발을 전담 AI '조이'의 개발을 완료했다.

조이가 처음 참여한 부분은 비가열 주스 개발이다. 비가열 레몬주스와 오렌지주스의 원료 원산지 제언과 분석이 조이의 손을 거쳤다.

축적한 수천 건 이상의 세부적인 제품 레시피와 공정을 조이가 학습하도록 했고 해외의 다양한 음료-푸드의 레시피와 개발 공정도 습득하게 하는 등 전문 분야를 집중 교육해 신뢰도를 높였다. 주스 레시피 생성-클렌즈주스 프로그램 제안-원재료 조사 및 추천제품 트렌드 포착 등 다양한 식품 개발 영역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혁신적인 식품 개발에 앞장 서 온 올가니카가 국내 최초로 제품 개발에 식품 전문 AI를 접목하게 돼 의미가 깊

다"며 "조이가 범용 AI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도화된 혁신 푸드 개발을 이어가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지연기금

지난해 12월에는 국산 생강즙과 미국 캘리포니아산 레몬즙을 주재료에 국산 아가시아플과 강황을 더한 '올가니카 부스터 레몬진저샷'을 선보였다. 시중의 일부 제품이 수입산 원물로 외주 생산하는 것과 달리 올가니카는 자체적으로 주스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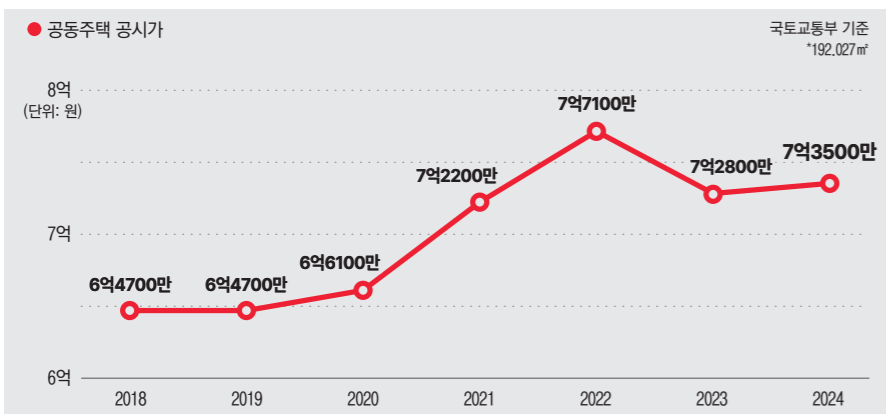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단독주택

주택은 대지면적 585㎡(약 176.96평)·연면적 330.36㎡(약 99.93평) 규모다. 대지면적 3.3㎡(1평)당 1000만 원 초반 수준으로 대지 시세 약 20억 원에 건물 가치를 합하면 20억 원 초 중반대 또는 건물 상태에 따라 그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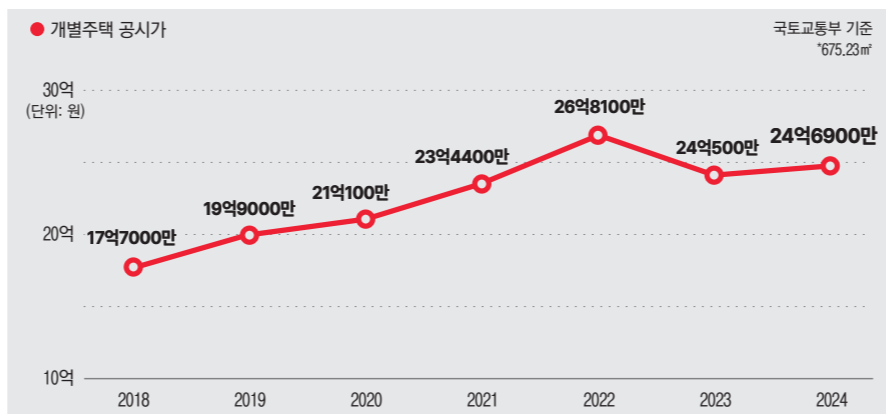
평창동은 한적한 분위기에 대저택이 즐비한 전통적인 부촌 지역으로 꼽힌다. 정재계 인사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많이 거주한다. 높은 언덕을 따라 고급 주택 단지가 줄지어 지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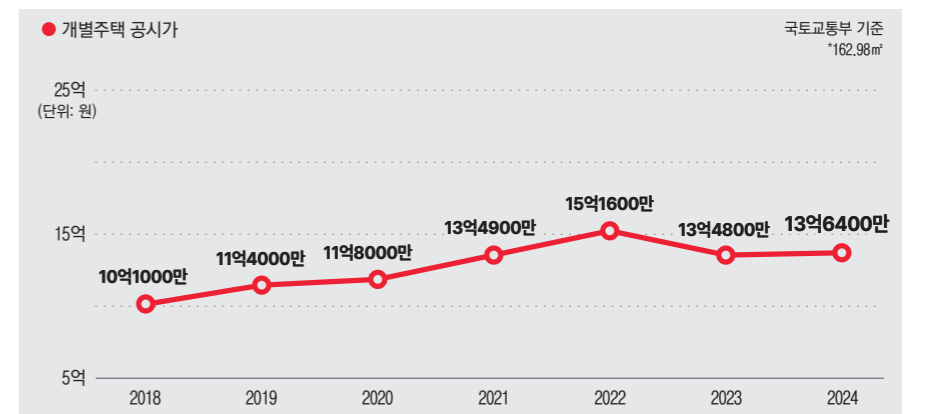
요진쉐레이블라



단독주택



단독주택



임기영

전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증권 대표이사 2009년 대우증권 대표이사를 거쳐 2014년 한라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 초대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고 대표이사 부회장-상임고문을 지냈다.



임기영 전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를 나와 연세대 경제학과-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 금융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후 1982년 뱅커스트리트은행 부지점장을 맡아 서울지점 기업금융을 책임졌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살로몬브러더스 한국사무소 소장 겸 한국 대표 역할을 맡았다. 1998년 삼성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2004년까지 IB 사업부문 상무-IB사업본부장(전무) 등을 거쳤다. 이후 도이치증권 한국부회장-아시아글로벌기업금융 부회장을 지내는 등 금융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08년 IB투자

우정석

전신안건설산업 대표이사



우정석 전 신안건설산업 대표이사는 주택-건축-공공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을 발휘하는 종합건설회사인 신안건설산업에 이끌려 있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투명 경영-고객에게 늘 열려 있는 윤리 경영을 펼쳐 2012년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종합대상을 받았다. 신안건설산업은 1978년 설립된 이후 정직과 신용-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 정신 아래 국내 건설업계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신안 비치호텔수원 연세 모아병원-과주 교차지구 내 근린상가-목포대 법과대학 우정관-부천 중동 신안빌딩 등 여러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류근관

전통계청장



류근관 전 통계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통계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량경제학-경제통계학을 연구했던 경제학자이자 통계 전문가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조교수-부교수를 지냈고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원,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연구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 포럼 자문교수,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금융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18대 통계청장에 임명돼 2022년 5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같

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유엔 통계위원회 의장단을 거쳐 지난해 5월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 인공지능(AI)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